

# 손흥민, 한국인 시즌 최다골

EPL 레스터시티와 경기서

18·19호골 토트넘 완승 견인

차범근 전 감독 뛰어넘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30)이 시즌 18, 19호골을 터뜨리며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한국인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골을 경신했다.

손흥민은 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레스터시티와의 2021~2022시즌 EPL 35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나와 2골 1도움을 기록, 토트넘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은 전반 22분 코너킥으로 단팍 해리 케인의 헤더 선제골을 도우며 EPL 통산 최다 합작골 기록을 41골로 늘렸다.

후반에는 직접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15분 데얀 쿨루셉스키의 도움을 받아 왼발 터닝 슈트로 2-0을 만드는 추가골을 넣었다.

이어 후반 34분에도 쿨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은 뒤 상대 페널티박스 외곽 외곽 지역에서 왼발 감아차기 슈트로 상대 골문 구석을 갈랐다. 정규리그 18, 19호골에 성공한 손흥민은 지난 시즌 자신이 기록한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인 17골을 넘어섰다.

동시에 1985~1986시즌 차 전 감독이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 소속으로 작성한 한국 선수의 유럽 정규리그 한 시즌 최다골(17골) 기록도 깼다.

EPL 득점왕 경쟁에도 다시 불을 붙였다. 이날 경기 전까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17골·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득점 공동 2위였던 손흥민은 멀티골로 단독 2위가 됐다.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5라운드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후반 34분 팀의 세 번째 골(리그 19호)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손흥민은 멀티 골을 기록하며 차범근의 최다 골 기록을 넘었고 전반 22분에는 해리 케인의 선제골을 도우며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떨어졌던 득점 선두인 모하메드 살라(22골·리버풀)와의 격차도 3골로 좁혀졌다.

시즌 잔여 4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몰아치기에 능한 손흥민의 역전 득점왕 가능성이 다시 커졌다.

이날 2골 1도움을 추가한 손흥민은 EPL 공격 포인트를 19골 7도움으로 늘렸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1골 1도움)를 포함하면 공식전 20골 8도움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3-0으로 앞선 후반 37분 스티븐 베르흐베인과 교체됐고, 이 과정에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진한 포옹을 나눴다.

토트넘은 후반 추가시간 레스터의 켈레치 이헤나조에게 한 골을 내줬으나, 3-1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3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한 토트넘은 승점 61(19승4무1패)을 기록 웨스트햄을 2-1로 누른 아스널(승점 63)에 이어 리그 5위를 유지했다.

EPL은 리그 4위까지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얻는다.

# 남14세 테니스 국가대표팀 우승

ITF 월드주니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서 일본 꺾어

조세혁, 대회 기간동안 단식·복식 등 모든 경기 승리로 이끌어

남자 테니스 유망주 조세혁(전일중)의 활약 속 테니스 국가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인도 뉴델라에서 열린 2022 ITF 월드주니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에서 남자14세부 테니스 국가대표팀이 일본을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특히 이번 우승에는 전북체육의 월드스타 육성 사업에 선정, 밀착 지원을 받고 있는 에이스 조세혁의 활약이 눈부셨다.

실제 조세혁은 대회 기간동안 단식과 복식 모든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레바논과 시리아, 호주와 함께 속해 예선을 치른 14세부 국가대표팀은 조1위로 8강에 진출해 인도와 카자흐스탄을 차례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일본을 만나 2대 1로 승리하며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한국은 오는 8월 체코에서 열리는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본선에서 세계 재패를 노리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우석대 사격부, 전국대회서 '금2·동3'

박진석, 남대부 50m 복사 619.1점

우석대학교 사격부는 제5회 대구광역시장애인 전국사격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5월 2일까지 대구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우석대학교 사격부 박진석(스포츠지도학과 4년) 학생은 남대부 50m 복사 개인전에서 619.1점을 쏘며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또한 김나현(스포츠지도학과 2년) 학생도 여대부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572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남대부 50m 3자세와 50m 복사 단체전에 출전한 박진석(스포츠지도학과 4년)·황준영(스포츠지도학과 3년)·윤지원(스포츠지도학과 1년) 학생이 각각 3위를 여대부 50m 복사 단체전에 출전한 김정연(스포츠지도학과 2



년)·천세영(체육학과 2년)·조다비(체육학과 2년) 학생도 3위에 올랐다. 김성민 감독은 "선수들의 체력과 정신력 집중 훈련을 통해 좋은 기량을 펼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100번째 어린이날, 태권도원에서 놀자

이달 5일 입장료 '무료'

상설공연·격파·전통놀이

박물관 전시 등 이벤트 다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태권도원 방문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어린이날인 5일 태권도원 입장료는 무료로,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태권도원 상설공연과 AR·VR을 활용한 가상 태권도를 즐길 수 있는 체험관 YAP전망대와 모노레일 등을 관람 체험할 수 있다. 특히 태권전과 명인관 전통무예수련장 등 70만평 태권도원의 자연과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을 배경으로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어 5일부터 8일까지 T1경기장 앞 광장



등에서 태권도원 캐릭터와 함께하는 격파를 비롯한 태권도 체험과 사진촬영 이벤트, 전통놀이 체험, 풍선아트 등 색다른 이벤트와

볼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연휴 나들이에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5일 가족과 함께 박물관 전시 관람과 미션활동에 참여해보는 우리가족 박물관 한바퀴를 7일과 8일에는 백담에서 만난 부처님특별전을 감상한 후 비단위에 그리는 연꽃체험프로그램을 선착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태권도를 통해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태권도원에서 보고 즐기는 모든 것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가치있는 체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원 어린이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태권도원 및 국립태권도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익산고 검도부, 검도회장기 중·고 대회서 메달 3개 획득

익산고등학교 검도부가 전국대회에서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2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남해에서 열린 제5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익산고는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남고 3학년부 개인전에 출전한 박정수는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결승에 진출 기세를 몰아 경기 광명고 선수를 2대 0으로 승리, 3학년부 최강의 자리에 올랐다.

2학년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단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은 파죽지세로 결승전에 진출했지만 아쉽게 경기 과천고에 석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1학년들도 단체전에 출전에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은성 기자



김영병 의심되면 '1339'로

## 기린미술관 개관5주년 기념

### 이흥재 초대전 (2관)

2022.4.1.(금) - 5.29.(일)

### 제22회 심흥재 개인전

2022.4.1.(금) - 5.29.(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기린오피스텔3층   관장 : 이현옥(010-8993-0147)